

 <b>국토교통부</b>	<b>보도해명자료</b>	
	<b>배포일시</b>	<b>2019. 8. 12(월) / 총 2매(본문2)</b>
<b>담당 부서</b>	도로투자지원과	<b>담당자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박병석 과장, 홍복의 사무관, 장진우 주무관</li> <li>• ☎ (044) 201-3897, 3902, 3905</li> </ul>
<b>보도일시</b>		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*평택-부여-익산(서부내륙) 고속도로  
 민간투자사업은 정상 추진 중입니다.**

- 서부내륙고속도로의 참여 건설사 19곳 중 11곳이 이탈하였으며, 환경영향평가 결과 등에 따라 1조4천억 원이 증액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.
  
- 지역주민은 서부내륙 주식회사의 등기사항증명서에 등재된 이사 변동(취임,중임,사임)을 주주(권소시업 참여업체)의 변동으로 오해한 것으로 현재까지 서부내륙 사업의 권소시업 참여업체가 변동되지는 않았습니다.
  - 다만, 현 출자자가 출자지분을 다른 출자(예정)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에 승인(5%이상)을 받거나 통보(5%이하)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
  - 이 경우 다른 출자(예정)자의 재무상태 또는 신용도 등을 확인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검토하고 있어, 동 사업의 경우에도 정상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.
  
-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에 따라 일부 사업비 증액 요인은 있으나 예상되는 증액 규모는 1조 4,000억 수준은 아닙니다.

- 추가 소요 사업비는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, 규모는 사업 추진이 곤란한 수준은 아닙니다. 향후 실시협약 및 민간투자관련 규정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여 원활히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8.12. 연합뉴스)>

- “서부내륙고속도로 컨소시엄 참여 건설사 대거 이탈”
  - 현대건설과 금호건설을 시작으로 참여건설사 19곳 중 11곳이 이탈
  - 환경영향평가 승인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증액이 예상되는 1조 4천억원을 민간사업자가 부담



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 홍복의 사무관(☎ 044-201-3902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